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체험 프로그램 (3)귀덕초등학교

“내가 만든 새집에 정말 새가 들어올까?”

영상 활용 비대면 숲 교육
‘새집 만들기’ 프로그램 인기
교내에 새집 설치해 관찰
“어떤 새들이 들어올지 궁금”

흰눈썹황금새, 되자빠귀, 긴꼬리딱새 등 생소하지만 작고 예쁜 새들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진다. 열심히 먹이를 물어오는 어미새를 기다리는 아기새들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며 귀덕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어느새 새들의 새들과 친구가 돼가고 있었다.

지난 16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에서는 제주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2021 숲길 체험 프로그램’이 비대면 교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제주를 찾는 새들의 모습과 특징을 살펴보고, 새들의 보금자리인 ‘새집 만들기’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영상에는 자연 생태 해설가이자 생태 공예가인 문상현 강사가 출연



귀덕초 어린이들이 자기가 만든 새집을 들여보이고 있다.

해 새집의 역할과 새집 만들기 활동의 목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새집은 사람의 집처럼 거주의 목적보다는 새들이 번식을 하고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며 키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새집을 새들이 활용한다면, 새 생명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문 강사는 설명했다.

새집 만들기 재료는 규격에 맞춰

제작된 키트 형태로 총 6개의 나무판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들도 영상을 따라 어렵지 않게 새집의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

순서에 맞춰 차근차근 새집을 만들며 학생들의 궁금증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새집에는 어떤 새가 들어올까?”, “새집 안에 배설물이 가득 차면 어떡하지?”, “새집 안에 나뭇가지를 깔아줘야 할까?” 서로서로 묻고 대답하며 즐거운 수업이 이어졌다.

수업에 참여한 임윤호 학생은 “내가 만든 새집이 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새집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새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흥채은 학생은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새집을 만든 시간이 즐거웠다”며 “내가 만든 새집에 정말 새가 들어올지 궁금하다”고 했다.

담임교사인 문금선 교사는 “새집 만들기 체험활동 전부터 학생들의 기대가 정말 컸다”며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활동이라 모두가 더 즐겁게 참여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새집에 그림 새 그림을 책과 스마트폰패드를 활용해 찾는 모습에서 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이 만든 새집은 귀덕초등학교 교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새집에 새들이 찾아 새끼를 낳아 키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꼭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도민·관광객 대상 제주경관의식 조사

“주변과 부조화된 건물이 경관 훼손”

‘야간 경관’에 40%대 점수
도민 90% “해안 숙박시설
중산간 개발 경관에 부정적”

제주지역 경관에 대해 도민들이 관광객보다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가 지난 24일 공개한 ‘제주 특별자치도 경관 재정비 계획 주민 열람 공고’에는 이같은 내용의 ‘경관 의식’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경관 계획 재정비 수립 영역을 맡은 제주연구원은 도민 500명과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제주 경관·야간 경관 만족도를 포함해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각 집단별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 경관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23.4%), 불만족(14.7%) 순이었으며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제주도민의 제주 경관 만족도는 3.65점을 기록했다.

관광객들은 도민보다 후한 평가를 내렸다. 관광객 전체 응답자의 81.4%가 제주 경관에 대한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민 만족 답변보다 19.5%포인트 높았다. 이어 보통(14.4%), 불만족(4.2%) 순이었으며, 5점 척도 기준으로 한 만족도 점수는 4.09점을 기록했다.

경관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도민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은 건

축물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4%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제주만의 특별한 경관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1.6%로 뒤를 이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제주 경관에 대한 불만족한 이유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은 건축물’(69.2%), ‘제주만의 특별한 경관 모습 부재’(15.4%)를 꼽았다.

야간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 대체적으로 낮았다.

야간 경관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도민 44.5%, 관광객 41.2%로 두 집단 모두 절반을 넘지 못했다.

특히 도민만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 항목 중 해안가 소규모 숙박·상업 시설과 중산간 개발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대다수 도민들이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가 소규모 숙박·상업시설에 대해 ▷제주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방식으로 경관 훼손(45.1%) ▷건축물로 인해 바다가 보이지 않아 조망감 훼손 196명(38.8%) ▷원색의 색채가 경관 훼손(5.7%)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응답자의 89.1%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고 답했다. 또 중산간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88.9%로 다수를 차지했다.

제주연구원은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 제주 경관의 미래상을 종전처럼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 구축’을 제시했으며 목표는 오감이 만족하는 경관관리를 내세웠다. 이상민기자

과수원 창고 상습털이 20대 구속

20여차례 2400만원대 절도

도내 과수원 창고를 돌며 값이 나는 공구를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일 야간간조 물침입절도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3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 창고에 침입해 전기톱과 드릴, 그라인더를 절취하는 등 올해 4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과수원 창고를 돌며 총 24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과수원 창고 절도 사건을 처음으로 접수했고, 이후 7건의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서귀포경찰서 형사팀이 전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경찰은 과수원 주변 CCTV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 7일 제주 시내 한 원룸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공구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수원 창고 문 단속과 CCTV 설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만약 피해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벌매들의 활공 26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상공에 월동지로 이동 중인 벌매들이 상승기류를 찾기위해 활공하고 있다.

제주 스쿨존 속도위반 상반기 5만1774건

부과된 과태료 37억여원
단속장비 증설이 결정적

올해 상반기에만 제주도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5만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제주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5만177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2만7748건보다 1.9배 많고, 지난 2017년 7824건 대비 6.6배 많은 수

치다. 부과건수가 많아지며 과태료 금액도 폭증하고 있다. ▷2017년 5억 5800만원 ▷2018년 10억6900만원 ▷2019년 12억5800만원 ▷지난해 19억8300만원 ▷올해 6월까지 37억 2000만원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는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 학교 주변 무단단속장비가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운전자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취 축 임
CONGRATULATIONS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향만리 형제일동

취 축 임
CONGRATULATION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협의회장



강승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협의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촌 강태일 가족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2020 도쿄 패럴림픽
TOKYO 2020

배드민턴 단식 동메달·복식 은메달



이동섭

2020 도쿄 패럴림픽 배드민턴 단식 동메달·복식 은메달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임원 일동